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전도 제자의 눈"
성경	빌립보서 1:1-11
일시	2018년 05월 06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빌립보서 1:1-11)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 요약 자료 ♣

전도제자의 눈 (빌립보서 1:1-11)

1. 교회를 향한 감사의 눈이 있습니다.

- 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1-2)
- 2)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3-4)
- 3)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1:5)

2. 복음 안에서 '나' 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 1)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빌립보서 1:6)
- 2)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서 1:7)
- 3)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빌립보서 1:8)

3.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 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1:9)
- 2)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1:10)

3)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11)

4. 복음 안에서 현장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 1)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빌립보서 1:12)
- 2)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서 1:13)
- 3)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14)

5. 참된 전도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15-30)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 5월 한 달 말씀의 본문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갇혀있는 동안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편지가 에베소서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다. 그리고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도 보내게 됐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서를 보내게 된다. 이걸 이름 하여 우리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저는 한 주간 빌립보서 1장을 묵상하면서 참 행복했다. 그 행복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참 좋겠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또 성경을 찾아 이곳저곳 열람하면서 '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세상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텐데...' 오늘도 어떤 성도가 막 들어오면서 하~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안듣는다고 그러더라. 교회 달려오면서 기쁘게 와야 되는데 오는데 성도의 모습에서 스트레스가 입에서 툭~ 튀어 나오는 거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받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새롭게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해서 현장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의 눈.' 여러분,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편지를 쓰게 된 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바울이 뭘 잘못했는가? 잘못된 게 없다. 뭘 사기를 쳤나? 사기 친 것 아니다. 뭘 사람을 죽였나?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감옥에 간 이유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바로... 이게 바로 문제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그 전하는 사람을 가뭇버리는 세상 속에 있다. 진리를 말하면 진리의 복음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예수 전하는 그 전도자를 감옥에 가뭇두는 세상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왜 예수를 말하냐?' 이거다. 딴 것 말해도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였다. 그리고 '포로'의 역사였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잡혀 '속국'된 역사였다. 심지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감옥은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로마감옥에서 지금 유대인인 이 바울이 갇혀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바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놓친 결과다.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 74편의 말씀을 읽었다.

시편 74:1-23

1. 하나님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쏟으시나이까
2. 옛적부터 일으키고 속량하시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시

3.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 주의 대적이 주의 피중 가운데에서 떠돌며 자기들의 짓발을 새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5.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6.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뿔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개인 곳을 더럽혀 땅에 없었나이다
8.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9.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중에 야는 자도 없나이다
10.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비방하셨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11.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12.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15. 주께서 바위를 조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16.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17.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18.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9. 주의 깃대들의 생명을 돌짐승에게 주시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리고 방금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또 다른 성경이 생각이 났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남쪽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버렸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 이었다. 바벨론의 이 사람들이 우거진 숲에 나무를 도끼로 콕~ 찍으면서 길을 내듯이... 이 바벨론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트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렸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시인이 쓴 시가 바로 시편 74편이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유는 뭘겠는가? 딱 하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주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세상 것', '육신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한, 두 번 경고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제사장을 보내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계속~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된 거다. 그 무너진 현장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시편 74편의 이야기다. 예레미야애가 역시 그 시대의 사람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 받고 있는 그 시대의 한 선지자가 아픔의 노래를 지었다. 그게 예레미야가 만든 '슬픈 노래'라서 예레미야애가라고 한다. 특히 4장에는 1절로 4절에... 제가 그 말씀을 일부러 적었다. 어떤 지금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두려고... **"1. 슬프다 어찌 그리 굵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2.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이 어찌 그리 도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3.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4. 젓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때여 줄 사람이 없도다"**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다. 결국 후대들은 거리의 타조가 알을 낳고 막~ 도망가듯이 후대들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줘야 될 전도자가 없다. 말씀의 떡을 구하지만 아무도 말씀의 떡을 전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헛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서 목말라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오늘 역사의 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 시대가 이렇다. 말씀? 듣기 싫어한다. 예배? 별 의미 없다. 교회? 매력 잃어버렸다. 목사? 우습게 본다. 성도? 세상에 매력 없다. 그 때에 오는 꼴이다. 이게. 오늘 저는 마음에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전하는 거다.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후대들만이라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복음을 좀 전하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눈을 뜨시기 바란다.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지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오늘 여러분이 떠야 될 눈... 그 눈이 바로 무슨 눈이냐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눈'이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다.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참 다양한 신학교도 있고 많은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목사들도 참 많다. 그리고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외친다. 그런데 세상은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왜 그런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여러분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마저... 만약에 세상에서 조롱받는 그런 교회라면... 심지어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도 이 교회 속에서 참 된 교회의 맛과 행복을 못 누린다면 교회 밖으로 떠난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고 나만이라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 된 교회'냐? 오늘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만 증거하려고 한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 제한된 시간에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다본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다. 빌립보교회. 그 빌립보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임재 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는 곳이 교회이고 성령의 성전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지금 들어왔다. '하나님 없다.'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게 교회다. 여러분. 또 하나,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 함은"** 교회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참 감사...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 이게 있어야 정상적인 신자다. 교회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목사님만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성도만 만나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라면 교회 아니다.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 교회는 기쁨이 넘쳐 찬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슬픔이 넘치는... 그런 애통함이 있는 교회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제목 바뀌어서 이런 기도 하시라.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참 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 번째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그 첫 날부터 바울이 교회를 떠나 전도/선교를 위해 지금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복음운동 했던 교회다. 바로 전도와 선교로 모든 방향이 맞춰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디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가? 어디에서 성령의 비밀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가? 어디에서 참 된 감사와 어디서 기쁨과 어디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교회다. 제가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왜? 과거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정말 잘 몰랐다.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교회를 정말 몰랐다. 그러나 이제 다르

다. 교회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데다. 교회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평생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곳이 교회다. 저는 복음 다음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가 됐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구원 받은 순간부터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만이라도 정말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만이라도 참 된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축복한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교회 속에 들어온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본인지 자신을 좀 제대로 보셔야 된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신은 자신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는가? 우리는 이 전까지 '틀린 나', '다른 나', '망할 나', 내가 아닌데 나 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나'라고 표현한다. 아시는가? 여러분? 땅의 흙을 가지고 눈, 코, 입, 손, 발, 다리를 다 만드신 후에... 이긴 흙덩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진짜 '나'는 흙덩이가 아니고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생령이 된 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흙덩이인 육신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나'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말씀 들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인간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절대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해야 되는 존재다. 예배를 떠나서는 나를 찾으면 안 된다.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 그게 뭐지 아시는가? 그게 사단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힌 이후로 이 예배가 완전히 상실 돼 버렸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린다. '원죄 속에 빠진 나.' 이 속에서 우린 '틀린 나'를 들었고 '다른 나'를 들었고 '망할 나'를 들었다. 이걸 누가 계속 뿌렸는가? 마귀가 그렇게 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망쳐버렸다. 하나님도 모르게 만들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겉모습만 가지고 나를 만들어 버려서 결국 사람은 돈밖에 모르고 눈에 띄는 것 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것 밖에 모른다. 결국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안 찾고 마귀를 쫓아가고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엉뚱한 것으로 헤매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겠느냐 말이다.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길을 잃고 지금 유괴범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다. 내 목숨을 던지고 물질을 던지고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우리 아이를 찾아오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셨는데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 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겠냐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마귀에게 붙잡혔을 때에... 사단의 종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단 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루고 여러분은 죄에서... 마귀와 지옥에서 건짐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나.' 이걸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뿐만이 아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열방과 만민들에게 알릴 '전도 제자로서의 나.' 아시는가?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누가 전하는가? 여러분의 입에서 증거 되는... 내 신앙 고백인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듣는가? 저는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입에서 다른 말 안 하고 예수만 말하니까... 예수만 전하니까 내가 얼

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말이다. 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또 목사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목사는 이것만 말 하라고 그러지 않는가? 아니, 다른 것도 못 한다. 책 얘기 해도 그건 저기 전문가들이, 박사님들이 하실 일이고... 나는 박사도 아니다. 나는 목사다. 목사는 뭐만 하면 되나? 성경만 가지고 얘기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쩔수도 없다. 세상 말로 팔자고 운명이다. 이게. 근데 너무 행복하다. 이 예수만 말하는 목사가 된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저는. 결국 이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 입어 우리 하나님 나라 간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나.'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됐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된다. 교회를 알아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 무시하지 마시라. 알잖아 보지 마시라. 나보다 좀 적게 있고 못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하찮게 보지 마시라. 여러분, 누군지 아시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사람들이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채워진다. 그 채워지는 게 바로 뭐냐하면 '참된 지식'과 '완전한 명철'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랑이라는게 그냥 밀도 끝도 없이 '사랑해.' 그게 아니다. '사랑해'는 분명히 사랑 할 수밖에 없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랑 가지고 이거 옹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이 있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과 그 명철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계속 풍성하게 풍성해지는 거다. 보여지는 거다. 여러분, 지식이 뭐가? 지식이 뭐가? 책 많이 보면 여러분... 똑똑해지지않는가? 저는 그렇게 책을 많이 안 봐가지고 소리만 치지 그렇게 뭐 전 유식한 설교를 잘 못한다. 근데 저는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라고 저는 확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식은 그렇게... 참고만 하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이란 다른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 돼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참된 지식이란다. 영생 얻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구원 얻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아시는가? 세상의 많은 책이 필요 없다는거 아니고 그런 정보나 테크닉한 그런 많은 기술들이 필요 없다는게 아니다. 그러나 그 책, 그 정보로는 절대 인간은 '영생' 얻을 수 없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아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라고 돼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만큼 신앙이 크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풍성해진다. 아시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요만큼밖에 모르면 여러분은 나이가 50이라도 요만한 애다. 열 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50살 먹은 아저씨보다 10살 먹은 애가 더 큰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큼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자라라라고 하는데 얼마큼 아시는가? 그래야 참된 사랑을 하실 수 있단 말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너희가 함께..." 이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의 마음에 있는... 사실은 전도자.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면서 전 그걸 또 한 번 확인했다. '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풍성해지고 더 나가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알아가면서 진실해지게 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하는구나.' 바로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멈추는게 아니다. 계속 성장을 한다. 몸은 우리가... 키는 제한 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더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와 지금 신앙생활 한지 몇 년이 되셨는가? 그 사이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땐 예수 아는 정

도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정도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가? 어느 장로님은 “장로 절대 하지마. 장로 하면 있지 너 고생 엄청한다. 아~ 교회에서 이거 완전히 시다바리 해야 되.” ‘시다바리?’ “완전히 중처럼 살아야 되.” 그러면서 “장로 절대 하지마.”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런다. 진짜 그럴까? 복음 모르는 소리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아는 만큼 헌신을 하게 돼 있다. 진짜 장로가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고 얼마나 목회자와 성도와 집사와 직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복음을 알면 그것만큼 축복 된 게 없다. 근데 모르던 그 중직이 짐이 된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목멘 단 말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왜 사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라.”하셨는데... 여러분,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돼 가지고 그 수고와 무거운 멍에를 짊어 지고 예수 생활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그 모든 짐들이 다 가벼워진다. 감사가 된다.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만큼 성도들은 성장하게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랬다. 여러분이 알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가정현장, 직장, 사업... 심지어는 아픔과 슬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심지어는 핍박과 죽음... 그런 고난 현장에서 여러분은 그 현장을 어떻게 보시는가? 빨리 벗어나고 싶죠? 문제가 해결되고 싶죠? 그거는 바른 눈이 띄어진게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다른 기도’를 한다. 다르게 얘기 한다. 12절로 14절에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이 무슨 일인가? 지금 감옥에 지금 붙잡혀 있는 일을 말한다. 이 일이 도리어 뭐가 됐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무엇이 전해진다고 하는가? 복음이 전파 되는 것으로... 이게 바로 ‘현장을 보는 눈’이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전도가... 복음이 더 확산 되는 일이 현장을 제대로 본 거다. 초대교회를 보시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외쳤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전하지 못하도록 막 걸어뒀다. 근데 그들이 매였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는가? 유대로 전파됐다. 또 유대 사회에서 더 예수를 말하니까 또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유대사회에서 격리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또 이 예수가 또 제한 된 게 아니라 또 어디로 퍼졌는가? 사마리아로 퍼졌다. 또 사마리아에서 퍼진 이 복음이 또 로마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이걸 막으니까 또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땅 끝까지 모든 열방으로 확산 됐다. 결국은 우리의 당하는 문제, 사건, 어려움들은 결국 뭘로? 복음이 계속 확산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큰~ 축복의 문이다. 혹시 가정 중에 진짜 풀통인 애가 있는가? 개가 진짜 축복덩어리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진짜 체험해 보시라. 진짜 어려운 문제일수록... 진짜 핍박이 있을수록... 진짜로 생명에 위협이 있는 사람일수록 ‘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보는 ‘현장 보는 눈’...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현장도 큰 어려움 없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거다. 그걸 영어로 ‘No Problem.’이라고 그런다. ^^ 문제 없다. 어떤 분이 “No problem.” 예, 맞다. 문제 없다. 어디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 결론적으로 전도제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 결국은 ‘교회’를 알았다. ‘나’를 알았다. ‘사람’과 ‘성도’를 알았다. 그리고 ‘내 삶’과 ‘현장’을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참 된 전도

제자’라고 하는데 이 참 된 전도 제자의 삶은 뭘로 나타나겠는가? 오늘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여러분이 바로 전도제자들이시다. 오늘 성경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다. 1장 20절과 21절... 함께 보겠다. 같이 읽겠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이... 참 된 전도제자의 삶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여러분 때문에 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내는 사람을 보고 참 된 전도제자라고 그런다. 그럼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참 된 전도제자의 삶을 사는 거다. 응답도 역시 여러분... 전도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낸다면 그 역시 참 된 전도제자의 삶이 되는 거다. 또 한 구절 보겠다. 27절이다. 같이 읽겠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기록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신분에 맞게 생활하라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 자녀답게 사셔야 된다. 전도자면 전도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전부 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종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다. 그럼 밖에선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뭘해라? “기뻐하라.”라고 기록이 돼 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전도제자가 뛰어야 할 이 눈을 기도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한주간 저는 이 한 구절 가지고 기도하려고 한다. 그게 결론이다. 어떻게 기도하나? ‘주여, 나의 눈을 여시사 교회를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사 참 된 전도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주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나의 기도제목으로 붙잡은 내용을 결론으로 말씀드린다. 한 주간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전도 제자의 눈’ 이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당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전도사:	권 예나 전도사
연락처:	(713) 907-0854
이메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